

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2.10.28.(금) 조간 2022.10.27.(목) 11:00	배포 일시	2022.10.27.(목) 6:00
담당 부서	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	책임자	과 장 노정식 (051-400-4106)
		담당자	주무관 노재영 (051-400-4385)

해양예보 이제는 두 시간 빠르게 확인하세요

- 해양예보지수 및 해양예보도 제공 시각 조정(매일 11시 → 9시)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*와 해양예보도** 등 해양예보 서비스 제공 시각을 10월 28일(금)부터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.

* 파도, 수온, 조류 등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해 해양레저, 선박운항 등 해양활동의 가능 정도를 분석·지수화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

** 우리나라 바다 상황(해수유동, 파고, 수온 등)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해양예보도면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어선어업, 낚시, 서핑 등 다양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석, 조류, 파고, 수온 등 해양예보정보와 해양예보지수를 제공하고 있다. 하지만, 이러한 해양예보 정보를 매일 오전 11시에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해양활동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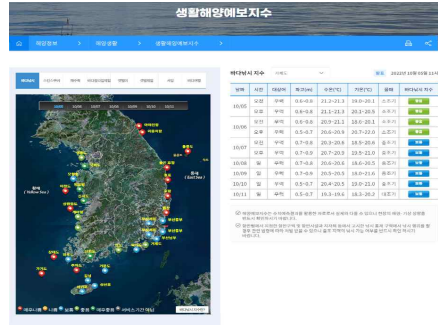
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예측모형의 가동시간을 재배치하고, 예보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해양예보정보와 해양예보지수 제공 시간을 매일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기게 되었다.

해양수산부 변재영 국립해양조사원장은 “이제는 아침 9시면 최신 해양예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 해양레저활동 등 바다에 나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최신 해양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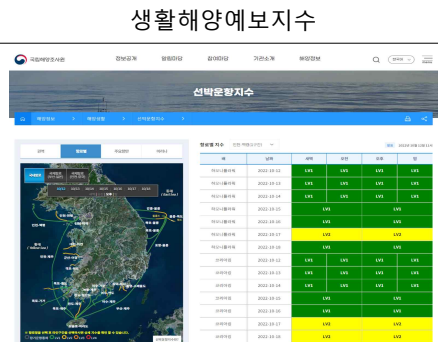
붙임

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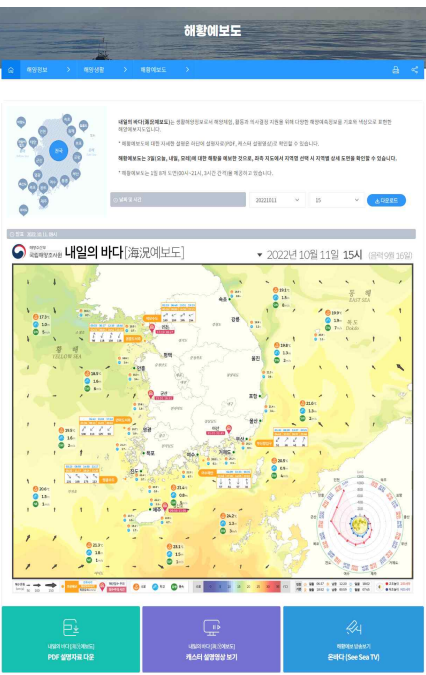
□ 생활해양예보지수, 선박운항지수, 해양예보도



생활해양예보지수



선박운항지수



해양예보도

내일의 바다(해양예보도)

선박운항지수
해양예보도(내일의 바다)

□ 해양예보방송(Seesea TV)



